



네덜란드인 사장이 경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과 합작으로 운영되는 식당은 북한 당국이 파견한 운영책임자 한명희 씨와 주방인력 4명 등 직원 9명이 모두 북한 사람이다. 사진 최병국 특파원

유럽 첫 북한 식당 암스테르담 개업

서방 향한 민간 창구... 북한 문화센터 자임
24석 규모... 아직은 비싼 코스 요리만 취급

마침내 유럽에도 북한 식당이 들어섰다. 네덜란드의 호텔사업가 램코 헬링만 씨와 램코 반 달 씨가 북한과 합작해 지난 1월28일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문을 열었다. 유럽에서는 처음인 북한 식당의 공식 명칭은 '암스테르담 평양 해당화 레스토랑'.

현지 사업 면허에는 네덜란드인이 사장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과 합작으로 운영된다. 북한 당국이 파견한 운영책임자 한명희 씨와 주방인력 4명 등 종업원 9명은 모두 북한 사람들이다. 한 씨는 북한 노동당 보위부 관할로 알려진 해당화식당 베이징 분점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총경

리, 즉 총책임자까지 지냈다.

외화벌이 수단이자 민간 외교 창구

24석 규모의 작은 식당 벽에는 평양 시내를 비롯해 자연과 인물을 그린 북한 그림들이 뽁뽁하게 걸려 있다. 중국 등 해외의 여느 북한 식당과 마찬가지로 한복을 입은 젊은 북한 여성 4명이 음식 시중을 들면서 막간에 북한 가요를 부르는 등 여흥도 제공한다.

예약제로 저녁에만 운영하며 음식도 9단계의 코스 메뉴 한 가지만 판다. 가격은 음료와 술값을 제외하고도 1인당 7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문 연 유럽 최초의 북한 식당 '암스테르담 평양 해당화 레스토랑'의 9단계 코스 요리 중 첫 번째 음식인 감자튀김 샐러드와 칠색나물. 사진: 최병국 특파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2000년 이후 유럽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유럽 국가에 처음 식당을 열었다는 것은 민간 교류를 통한 서방과의 관계 개선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은 최소 50개가 넘지만 유럽, 이른바 서방에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식당은 홈페이지에서 북한을 서방에 알리는 문화센터이자 북한과 서방인 간 가교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평양 해당화 레스토랑

암스테르담 남서부 변두리인 오스도르프-미텐구(區) 우베르딩엔파트 1번지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에 '평양 레스토랑'이란 알파벳 간판이 걸려 있다. 당초 주민회관으로 쓰던 식당의 초인종을 누르니 한복 입은 아가씨가 나와 환대하며 안으로 안내했다. 복도와 홀 내부 벽엔 북한 미술품들이 뿔뿔하게 걸려 있다. 한쪽에 작은 피아노가 놓여 있고 벽에 걸린 LCD TV 화면에는 북한 가요 가사가 흘러났다. 내부는 생각보다 작았다. 유럽은 수요가 적어 규모도 작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으나 300석으로 알려진 중국 베이징 해당화식당 본점 외관과 규모, 실내장식 등과는 비교도 안 됐다.

기자가 찾아가했을 때 손님은 네덜란드인 젊은 남성 두 명 뿐이었다. 한 지배인은 문을 열기는 했으나 아직은 저녁에만 임시 영업 중이어서 하루에 서너 명에서 열 명 정도만 현지 신문의 개업 소개 기사를 보고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람은 연합뉴스 특파원이 첫 손님이라고 귀띔했다.

Europe

해외에 개설하는 북한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외화벌이 수단이자 정보수집과 대외선전을 겸하는 민간 외교 창구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유럽과의 관계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유럽 국가에 처음 식당을 문 연 것은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

유료(약 12만 원). 현지의 웬만한 고급 식당 코스 요리들보다 비싸다. 한 씨는 냉면이나 만두 등 적절한 가격의 단품 음식은 팔지 않는다는 질문에 "아직은 임시 운영 중이며 정식 개업 이후에는 차츰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나가고 점심 영업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북한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외화벌이의 수단이자 정보 수집과 대외선전을 겸하는 일종의 민간 외교 창구라고 말한다. 식당의 네덜란드인 책임자 반 달 씨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식당이 포함된 문화센터를 열어 서구인들과 북한인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 했다"며 "이 식당은 달한 나라의 작은 대외창구(opening)"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강연과 영화 상영, 미술품 전시와 판매, 북한 관광 홍보 등을 통해 "북한과 서방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사전에 주문한 코스 요리가 하나씩 차례로 나왔다. 오골탕, 불고기, 칠색나물, 고등어구이 등 한식과 함께 초밥과 회도 있고 감자튀김 샐러드와 굴 그라탕 등 서양식 요리도 포함돼 있다. 들쭉술 등의 북한 술은 없고 하이네켄 등 현지 술과 음료들뿐이다. 79유로나 받는 코스 요리치고는 일부 음식의 질이 떨어졌다. 특히 회와 초밥에 사용한 생선의 선도나 크기, 종류는 가정용 즉석 초밥용으로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재료로 보였다. 무엇보다 북한 고유 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없었다. 냉면이나 만두 등 합리적인 가격의 단품 요리도 없었다.

이렇게 영업해서는 현지인이든 한국 주재원이든 그다지 올 것 같지 않은데 장사가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한 씨는 아직은 재료 구입 등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임시 운영하면서 손님들 의견도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봉사원 아가씨 4명은 새 음식이 나오는 사이에 홀 한쪽에서 노래방 반주에 맞춰 가벼운 춤을 곁들이며 ‘휘파람’ 등 북한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로 서양 클래식 음악이나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등을 연주하기도 했다.

이 식당은 헬링만 씨와 반 달 씨가 개설하고 북한 사람 9명이 노동비자를 받고 일하는 형태로 개업했다. 반 달 씨는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에서 돈을 지원받거나 별도로 주는 일은 없음을 강조하며 “북한인 종업원 9명에게 임금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 달 씨는 공식 직책을 묻는 말에 자신은 소유주가 아니라 ‘책임자(director)’이고 한 씨 역시 ‘책임자(director)이자 관리자(manager)’라고만 설명했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인이 사업면허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동 운영의 형태로 만들었을 뿐 북한 정부가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199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사관 옆에 “구내식당을 겸한 북한 식당이 개인 차원에서 잠시 운영되다 문을 닫은 적이 있으나 북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업으로 유럽에 식당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체육 당국 등 여러 기관이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화는 노동당 보위부가 관리하는 곳이라며 베이징 해당화식당 책임자인 한 씨가 파견된 점으로 봐서도 암스테르담 평양 레스토랑의 의미는 가볍

지 않다고 해석했다. 외화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유럽에 민간 외교의 거점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무진 교수도 같은 의견이었다. 또 준비는 전부터 했더라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문을 연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 사설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지식경제 기반 등 문명 강국을 강조했다”며 “문명 강국 형성의 일환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확대한 시발점이 이 식당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식당 개설한 두 사업가

북한 식당 개업을 표면적으로 주도한 헬링만 씨와 반 달 씨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자주 왕래했다. 북한 영화제를 네덜란드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북한과 주체사상을 소개한 책자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했고 작년 10월에는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다녀오기도 했다. 북한과 네덜란드 간 유대 강화를 위한 ‘북한재단’도 만들었다.

식당에서 특파원과 만난 반 달 씨는 두 사람 다 이름이 렘코로 같지만 성은 다르고 친인척 관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왜 북한 식당을 열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실상을 서방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사업상 북한을 왕래하다 보니 북한에 호기심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됐으나 외부 세계에는 북한이 “실제보다 어렵게 그려져 있어” 가교 역할을 할 식당을 갖춘 문화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간지 폴크스 크란트 등 현지 언론은 식당 개점을 소개하는 1월28일자 기사에서 이들에 대해 “일각에선 독재국가인 북한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거나 북한 종업원들은 모두 기관원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그러나 이들은 오스트리아인 토마스 루쉬 등이 주도하는 유럽의 북한과 주체사상 추종세력과 자신들을 연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상의 왼쪽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는 반 달 씨에게 배지의 주인공을 존경하는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지 물었다. 그는 “나는 이념 추구자가 아니다. 북한 정부와도 관련 없다. 어느 나라나 정치와 민중은 크게 다르다. 북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우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



시중을 드는 봉사원 아가씨 4명은 음식이 나오는 동안 홀 한쪽에서 반주에 맞춰 가벼운 춤을 곁들여 북한 노래를 부르거나 피아노로 서양 클래식 음악 등을 연주한다(좌). 사업상 북한을 왕래하다 호기심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져 북한의 실상을 서방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식당을 열게 됐다(우)는 네덜란드 측 운영 책임자 렘코 반 달 씨(우). 사진: 최병국 특파원

했다. 배지를 단 것은 “그저 마케팅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사업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의 휴대전화 벨소리에선 행진곡풍의 북한 노래로 보이는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 도중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때마다 왼쪽 상체를 비스듬히 뒤로 제치거나 옷깃을 접어 배지를 계속 가리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다. 왜 배지를 가리느냐고 묻자 “오해받기 싫어서”라고 말했다. 자신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북한과 관계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 식당이 무슨 기업이라고 할 만 하느냐”며 피식 웃었다. 그러면서 헬링만그룹이 네덜란드 내에만 대형 호텔 4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이들이 지난해 여름 인수한 호텔 ‘암스테르담 시티 웨스트’가 있다. 북한에서 파견된 9명도 이곳에서 숙식하고 있다.

객실 166개 규모의 호텔 리셉션과 엘리베이터에는 ‘유럽 최초의 북한 식당인 암스테르담 평양 레스토랑을 방문해 보라’는 광고물이 있다. 호텔 숙박 손님들의 경우 코스 요리를 대폭 할인한 55유로에 제공한다는 문구도 있다.

이에 대해 반 달 씨는 “호텔과 북한 식당은 전혀 관련 없다”며 “다만 호텔 손님들에 대한 정보와 편의제공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돈 때문에 북한 식당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며 “북한 여성 종업원들과 북한에는 이곳 식당 등에서 버는 돈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당을 갖춘 문화센터 아이디어가 나오고 북한인 종업원이 작년 12월15일 네덜란드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고 밝힌 그는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돈을 버는 사업은 북한인보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소식통은 “이들은 당초 북한과 네덜란드 수교 10주년인 작년에 개업하려 했으나 차질이 빚어졌고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개업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두 명의 렘코 씨와 북한 당국은 아직 냉면기계도 평양에서 도착하지 않아 음식 메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개업을 강행했다.

2월17일 정식 개업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소식통은 “김위원장 생일(2월16일)에 맞추고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강성 문명대국이 이어지고 있음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네덜란드 당국도 대외적으로는 자국 민간 사업자가 적법하게 개업한 식당과 북한인에 대한 노동비자를 절차에 따라 허용한 것일 뿐이지만 “북한에 대한 자국 기업인들의 진출과 정보 습득의 통로 확대라는 중장기적인 내부 목적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병국 브뤼셀 특파원 choibg@yna.co.kr